

## 地理學科 30年 : 回顧와 展望

朴 英 漢\*

지리학과 30년의 회고와 전망은 지난 30년 동안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가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한 학과가 걸어온 행적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학과의 구성체인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을 통해서 이룩한 흔적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발전과 관련시켜 그 방향을 살피려 한다. 왜냐하면, 한 학과의 존립과 발전은 학문 연구의 성과와 직결되며, 그것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리학은 일반적으로 생태적·공간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다양한 지표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리학은 현존하는 현상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과거와 미래의 생활공간에 관한 구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리학은 지표상의 현상에 따라 크게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두 연구 분야가 성립되고, 이들 양자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성을 구명하려는 지역연구가 그 본질을 이룬다고 보여진다.

지리학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시대적 배경을 가진 학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일찍 부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것을 지도와 지지로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지리서가 서술되고 이를 통하여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표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현대과학의 면모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등교육기관에 지리학과를 설치하지 않았다. 단지 보조학문으로서 일부 지리학 과목의 강의는 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지리학의 출발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출발한 편이다.

광복후, 국민교육의 측면에서 지리학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리교육을 위한 학과가 먼저 설치되고, 학문연구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리학과는 경북대에 이어 1958년에 본교 문리과대학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학교에 정규 지리학과가 설립된 것은 한국 지리학의 발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 간의 한국사회는 소위 「근대화」라는 시대정신에 의하여 형성된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획일화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이것은 학문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다고 본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은 이 시대의 사회적 작용력이 공간상에 흔적을 남긴 제현상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교 지리학과에 대한 회고는 출발 당시의 교수진의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리학과를 창설하신 육지수(1907~1967) 교수와 김경성(1918~1978) 교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지리학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학과가 지향할 방향정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石田 陸芝修 교수는 동경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의 감사연구실 조수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후 1936년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수와 경성제대 강사로 재직하면서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을 강의하였다. 石田선생은 경제학을 바탕으로 감사업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경제지리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지리서적의 탐독을 거쳐 지리학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경제현상의 생태적 공간적 질서 구명에 몰입하게 된 것 같다. 일제시대에 이미 한국 감사업의 분포와 수리시설의 분포를 생태적 측면에서 구명하고 고려 인삼의 경제지리학적 고찰 등을 통하여 지리적 방법론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컸다.

경제지리학의 학적 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연구와 노력 끝에 경제지리학을 자원론과 입지론으로 체계를 세워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였다.

1958년 지리학과가 설립되었을 때 자원론과 입지론을 교과목에 설정하여 그 무게를 더해갔다. 그리하여 1959년에 경제지리학 제 1부(자원론)가 저술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지리학을 산업에 의한 분류가 아닌 학문 체계별로 자원론과 입지론으로 대별한 것은 오늘날 지리학이 생태체계적 접근과 공간분석적 접근으로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려는 것과 일치된다고 보여진다.

石田선생은 경제지리학 분야 외에도 「지리학사」와 「인구분포론」 「취락지리학」 등의 강의를 맡았다. 특히 石田선생은 독일어에도 능통하시어 1958년 현대지리학의 창시자인 홀블트의 100주기 행사에서 당시 문리대 교수였던 조가경 교수와 함께 통역을 맡았다. 石田선생이 현대지리학의 뿌리인 구라파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지리학사 시간에 비교적 상세히 강의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石田의 지리학 방법론의 전개는 영어와 독일어권의 고전을 섭렵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石田선생은 지리학 이외에도 「국제경제론」과 「통계학」을 강의하였다. 오늘날 실증주의 지리학의 전개에서 필수적인 도구인 계량기법에 해당되는 「통계학」을 지리학과와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지리학도는 모름지기 인접학문에 관한 조예와 보조학문의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또한 石田은 지리학을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인구문제 분야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학문 연구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행한 보기도문 지리학자로 추앙될 분이다.

金庚星 교수는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지리학과 인연을 맺어 교편을 잠시 잡으신

후 1952년 가을 미국에 유학하여 1958년 귀국으로 미국의 현대지리학을 최초로 한국지리학계에 소개하였다. 蓮巖선생은 「지도학」 「항공사진판독」 「자원의 보전」 「하천유역관리」 등을 교과과정에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강의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분야는 미국의 실용적 학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리학을 한단계 높인 것이며, 응용지리학 분야를 한국에서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蓮巖선생은 그간의 강의를 바탕으로 1963년에 「인문지리학」을 저술하였으며 그 저서를 통하여 지리관을 파악할 수 있다. 강의와 연구 이외에도 국토종합개발 심의회 및 국립공원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토계획조사단의 계획위원으로 정부의 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국제지리학연합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을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공헌하였다.

두분 선생에 의하여 창설된 지리학과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을 추구하는 학풍의 방향이 자리잡게 되었다. 두분 선생의 지리관을 그 당시 제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아쉬움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외에도 사범대학의 이지호 교수가 「도시지리학」을, 김상호 교수가 「지형학」을, 그리고 일본 동경고등사범의 지리역사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에 계셨던 이봉수 교수가 「한국지리」를 강의하였다. 이 분들은 한국지리학계의 제 1세대로서 교육과 연구에 남다른 열의와 애착을 지녔으며, 현대한국지리학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金道貞(1934~1974) 교수가 취임하면서 서구의 현대지리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김교수는 자연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특히 기후지형학을 한국에 도입함으로써 자연지리학의 연구분야를 확대시켰다. 정열적인 성격으로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하였으며 답사를 중히 여겼다. 짧은 생애를 마친 것은 학과의 큰 손실이었다.

1968년에는 육지수 교수의 서거로 지리학과는 첫 졸업생인 필자가 전임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1970년대의 지리학과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적 구성의 변화를 보면, 1973년에 2회 졸업생인 김인 교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부임하였고,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의 개편에 따라 문리과대학 지리학과가 새로이 설립된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었다. 이때에 사범대학의 김상호 교수와 교육대학원의 이찬 교수가 본 학과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독일에서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박동원(1942~1987) 교수가 부임함에 따라 교수수는 6명으로 늘어났고 전공분야도 다양성을 띄우게 되었다.

이 시기 동안에 지리학과는 획기적인 업적은 1970년에 학과의 전문학술지인 「낙산지리」가 연간으로 창간된 것이다. 이것은 1978년에 오늘날의 「지리학논총」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리학과는 이 학술지는 내용의 충실을 기하면서 한국지리학계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한 교수진에 의하여 대학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연구업적도 양과 질의 면에서 풍부해졌다.

1970년대는 전통지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리학의 과학화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였으며, 지리학과의 구성원들은 앞장을 섰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계량기법의 도입과 함께 논리실증주의 방법론에 편승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이론을 검증하고 모델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문지리학 분야는 시대적 조류였던 성장주의 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현상에 관한 공간구조의 분석에 치중하였다.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가 국토구조에 미친 영향의 연구가 진전을 보였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는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관심이 고조된 분야로서 문화경관의 발달과 그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연지리학 분야는 이 시기에 구미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침식 및 퇴적 지형 분야가 활기를 띠었으며, 자연보호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지역의 조사연구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인접학문과의 유대관계의 폭을 넓혔다.

1980년대의 지리학과는 인적구성과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활기찬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는 시기였다. 1970년대에 교육받은 신진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함에 따라 학문의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독일에서 사회지리학을 전공한 류우익 교수가 자리잡고, 미국에서 공업입지론을 연구한 박삼옥 교수가 1982년에, 교통지리학을 전공한 허우궁 교수가 1984년에, 1988년에는 환경생태학의 유근배 교수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그간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 열중한 최창조 교수가 취임하였다. 이것은 실로 놀랄만한 획기적인 교수진용의 교체이다.

이러한 교수진용의 변동은 김상호 교수와 이찬 교수의 정년퇴임과 정년을 넘기지 못하고 타계한 교수들의 후임이란 점을 생각할때, 애석하고 아쉬움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분들의 업적을 이어받고 학문 정진에의 각오가 대단한 신진그룹의 진출은 지리학과가 새롭게 태어난 계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2학기에 이찬 교수의 정년퇴임으로 한국지리학계의 제 1세대가 물러난 마당에 지리학과는 민주적 협동정신에 의하여 지리학계를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시기의 학부생의 증가는 한때의 불운을 딛고 학문의 저변을 확충할 수 있는 대학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6년 박사과정이 설치된 이후, 1985년에 첫 학위수여자를 배출하였으며, 매년 석사과정에 10명 내외, 박사과정에 3명 정도가 입학하여 학문에 온갖 정열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의 논문들은 한국지리학의 연구방향을 가늠하는 척도의 구실을 하여 왔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70년대의 연구성과를 뒤돌아봄과 동시에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학원 교과과정을 전교수가 참여하여 정비하는 기회도 가졌다. 무섭게 변동하는

사회에 매달려 오면서 국토공간의 구조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국토공간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누적되는 공간이 아니라 한민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국토에 대한 인식변화가 고조되면서 지역연구에 관심의 초점이 돌려졌다. 소지역연구는 지역변동의 원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국토구조는 남북한지역간의 논의를 예외로 한더라도 급속한 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이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문제의 적은 한민족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의 연구활동은 단편적인 현상의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지역현상과 그 변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석의 틀이나 이론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소홀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역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논의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현상과 국토구조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리학은 생태적, 공간적, 지역복합적 분석을 통하여 지표현상을 설명하려는 추세 속에서 지리학과가 행한 그간의 연구는 생태체계적 지역복합적 분석에 소홀한 면도 있다. 금후 지리학과는 이 양 분야에서의 연구의 양과 질을 높임으로써 지리학 연구의 삼각체계가 균형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균형적 연구를 바탕으로 금후 지리학과의 연구활동은 고밀도 사회 속에서 과밀과 과소로 표출된 지리적 현상과 그것이 내재된 지역의 변동과정을 구명하는 이론적 틀을 개발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살피게 될 것이다. 과거없는 현재가 성립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역사공간에 대한 연구도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공간상을 제시하는 작업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후기산업사회가 국토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처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 보다는 협동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적 노력은 제도나 기관을 통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가치 「국토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지난 40여년 동안에 걸친 국토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구영역은 우리 국토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왔다. 한민족의 생활터전은 한반도임을 직시하고 북한지역연구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속의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외지역연구——특히 사회주의 국가군의 지역연구——에도 심도를 더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과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상기와 같은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연구 열의와 교수와 학생간의 일체감의 형성을 비롯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자원의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들을 지리학과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시다.

심포지엄 「韓國社會의 發展과 國土構造의 再編成」

- 
- |                      |   |
|----------------------|---|
| 1. 國土의 再認識 : 問題와 未來像 | 사회 : 김덕현(경 상 대 학 교 교 수)<br>발표 : 류우익(서 울 대 학 교 교 수)<br>토론 : 김부성(고 려 대 학 교 교 수)<br>이장춘(경 기 대 학 교 교 수)<br>임덕순(충 북 대 학 교 교 수) |
|----------------------|---|
- 
- |                                   |   |
|-----------------------------------|---|
| 2. 國土空間의 發展과 聚落體系 :<br>同時多元的 接近方法 | 사회 : 권용우(성신여자대학교 교 수)<br>발표 : 김 인(서 울 대 학 교 교 수)<br>토론 : 김영성(상명여자대학교 교 수)<br>신용철(서 원 대 학 교 교 수)<br>최삼용(부 산 대 학 교 교 수) |
|-----------------------------------|---|
- 
- |                              |   |
|------------------------------|---|
| 3. 國土開發과 産業立地 : 政策方<br>向과 戰略 | 사회 : 조창연(공주사범대학교 교 수)<br>발표 : 박삼옥(서 울 대 학 교 교 수)<br>토론 : 안정근(대 구 대 학 교 교 수)<br>이희열(부 산 대 학 교 교 수)<br>한홍렬(서 원 대 학 교 교 수) |
|------------------------------|---|
- 
- |                               |  |
|-------------------------------|--|
| 4. 종합토론<br>國土構造의 再編成 : 開發과 保全 | 사회 : 박양춘(경 북 대 학 교 교 수)<br>토론 : 유근배(서 울 대 학 교 교 수)<br>장보웅(대 한 지 리 학 회 장)<br>조정계(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br>최창조(서 울 대 학 교 교 수)<br>허우금(서 울 대 학 교 교 수) |
|-------------------------------|--|
-